

지역화폐 종이상품권 세금이 줄줄 샌다

상품권 받으면 매출 신고 않고 재사용 '탈세' 악용
"카드·모바일 상품권 전환 통해 투명성 확보해야"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순환을 위해 발행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가 올해 발행액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자칫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30일 구례지역 상인들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지원금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됨에 따라 상가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과세 사업자들이 상품을 거래하면서 종이상품권을 받으면, 이를 매출에 반영하지 않고 상품권

을 재거래한다는 것이다. 상품권은 한 번 사용하면 금융기관에서 현금화해야 하는데, 현금 대용으로 상품권을 다시 사용하면서 사실상 매출이 누락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종이상품권으로 1000만원어치 상품을 거래했다면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90만원이다. 일반과세 사업자들이 매출 신고를 하지 않고 이 같은 방법으로 5년간 5차례 거래했다면, 부가가치세는 450만원이어서 하지만 실제 낸 세금은 90만원에 그친다. 360만원이 탈세되는 것이다. 상인들은 이같은 현상은 전국적일 것이라고 귀

뜸했다. 지역화폐의 전국 발행 규모가 10조원이라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9000억원이 넘는다. 구례읍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A(60) 씨는 "종이상품권을 폐지하고 카드나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하면 사용의 투명성이 확보돼 이같은 폐단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종이 상품권을 계속 발행한다면 열차표와 같이 사용 표식을 내면 한 번 사용으로 끝나 탈세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다른 상인 B씨는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하게 돼 있는 온누리상품권도 마찬가지"라며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든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액도 3조원에 가깝다. 구례군 관계자는 "지역상품권은 유효기간이 5년이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용해도 상관

이 없다"며 "세금 관계는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세무 관계자는 "지역상품권이 100억원 발행했다면 매출 또한 기간에 상응해 신고돼야 하는데 매출이 오르지 않아 이상하다"며 "종이상품권의 운영·관리에 있어 제도적 정비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구례군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지난 2013년부터 매년 5억원씩 3년간 15억원을 발행했으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으로 지난해 42억원, 올해 100억원 등 총 157억원(1만원권 157만장)을 발행했다. 157억원의 부가세는 14억2700만원이다. 지역화폐는 액면가의 10%를 할인해 일반에 판매되며, 할인된 10% 금액은 국가에서 8%, 지자체에서 2%를 부담하고 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음주차량에 치여 순직
구례경찰서 고 배문수 경감
6년만에 추모상 제막



군무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순직한 경찰관을 기리는 추모상이 세워졌다. 구례경찰서는 청사 본관 1층 현관에 고(故) 배문수 경감의 순고한 희생을 기리는 추모상을 제막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사진> 구례경찰서 읍내파출소에서 근무했던 고 배 경감은 지난 2014년 4월7일 무전취식 피의자를 붙잡아 파출소로 돌아오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순직했다. 그는 사망 당시만 41세였다. 재직 중에는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동료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모범 경찰관이었다. 추모상은 고인을 추모하고 그의 경찰정신을 기리자는 경찰관 동료들의 뜻이 모여 6년 만에 건립됐다. 추모상이 들어선 공간에는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강은석 구례경찰서장은 추념사를 통해 "배문수 경감 순직 6주기를 맞아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한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한 그의 경찰 정신은 동료 경찰관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며 그를 기렸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돌산 향일암 일출광장 리뉴얼·진입로 확장 등 본격 추진

여수시, 국비 등 52억 들여
2023년까지 관광환경개선

여수시는 돌산 향일암권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섬·해양 웰니스 관광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도비 26억원 등 총 52억원을 투입해 관광환경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향일암을 CNN이 뽑은 '2020년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 33곳'에 포함된 여수 대표 관광명소로, 매년 70만명 이상이 찾고 있다. 하지만 여행자 리뷰 조사 결과, 진입도로 병목구간으로 인한 차량 정체와 보행로 단절 등 열악한 교통사정으로 부정적 인식이 많고, 관광객 대다수가 향일암만 둘러보는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여수시는 전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사업으로 도비 26억원을

확보하고 시비 26억원을 투입해 총사업비 52억원을 들여 향일암권역의 진입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 일출광장 리뉴얼, 경관조명, 경관특화 사업을 진행한다. 내년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 오는 2023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여수시는 이와 함께 새로운 관광콘텐츠 확충을 위해 ▲모도동 조·명 연합수군 테마관광자원 개발사업, 도독마을 관광자원 개발사업 ▲여수섬섬길(섬마을 너울길) 조성사업 ▲금오도 비렁길 활성회사업 등을 위한 국고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섬과 웰니스를 활용한 관광개발 추진방향에 맞춰 다양한 루트의 국고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일레븐 브리지 섬 테마별 관광자원화 사업 등 글로벌 해양관광선도 도시 조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시는 총사업비 52억원을 투입해 돌산 향일암권역 관광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여수시 제공>

출향인사가 3억 상당 코로나 검체키트 순천시에 기증

노블바이오 백계승 대표

순천시는 출향인사가 운영하는 ㈜노블바이오에서 3억원 상당의 '코로나19' 검체키트 10만 개를 기증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지난 8월 6000만원 상당의 검체키트 2만 개에 이은 추가 지원으로 출향인사의 고향 사랑이 담겨 있다. 검체키트는바이러스 전용 검체채취 수술 배지로 채취한 검체를 전문검사기관까지 온전한 상태로 보관하는 키트다. 순천고 39회 졸업생 백계승 씨가 운영하는 ㈜노블바이오에는 경기도 화성의 의료기기 제조업체로 아랍에미리트에 대한민국 최초로 코로나19 관련 제품을 수출한 회사로 화제가 된 바 있다.

백계승 노블바이오 대표는 "고향 순천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지원하게 됐다"며 "이른 시일 내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긴박한 상황에 28만 순천시민을 위해 큰 도움을 줘 감사드린다"며 "순천시민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지난 7일 시중은행에서 직장 내 집단 감염을 시작으로 18일에는 하루에 20명이 확진을 받는 등 급격한 확산세를 보였다. 순천시는 이를 막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해 대응하고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 출향인사인 백계승 ㈜노블바이오 대표가 지난 8월에 이어 최근 3억원 상당의 코로나19 검체키트 10만개를 순천시에 기증했다. <순천시 제공>

순천만 패류자원 조성

가리맛조개 치패 15kg 살포

순천시는 순천만 패류자원 조성과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 순천만 특산품인 가리맛조개 치패를 어촌계에 무상으로 분양·살포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가리맛조개 치패 살포는 순천이 고향인 정채용 '더-오션' 대표로부터 6700만원 상당의 치패 15kg을 무상으로 지원받아 시행했다.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는 치패 살포 후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량 조사·분석을 통해 패류조성사업이 갯벌에 미치는 영향도 연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순천만 패류자원 조성 및 어민소득 증대에 활용할 방침이다. 순천시는 지난해에도 전남해양수산과학원 미래수산연구소로부터 가리맛 치패 4kg(약 40만마리)을 무상 지원받아 순천만에 살포했다. 또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시행된 별량 장산 갯벌복원지역에도 가리맛조개를 시험 입식했으며, 사후 모니터링과 생태조사를 병행해 국내 최초 해양수산부 '갯벌생태마을'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매매물건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매매가 : 48억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매매가 : 61억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매매가 32억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리조트 매매



소재지: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 토지 : 22784㎡(6892평) • 건축물 : 4290㎡(1298평) 지상5층
- 총객실수 : 55세대 • 부대시설 : 세미나실, 카페, 매점, 바베큐장
- 매매가 : 80억

광주 · 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 · 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